

LUXURY

March 2014



13TH ANNIVERSARY

서울 최고의 프렌치 레스토랑 29

패션디자이너 12인의 시그너처스타일

2014 화이트닝트렌드, 'Light Up'

Cartier

바티 커, 수수께끼 인도의 '통역사'

온몸에 빈디를 붙인 거대한 코끼리 조각, 반인반수를 찍은 사진, 빙글빙글 돌아가는 여러 개의 지구본... 상하이 록밴드 아트 뮤지엄 Rockbund Art Museum에서 열리고 있는 바티 커 Bharti Kher의 전시는 인류학적, 신화적, 종교적 함의로 가득하다.



©the artist and the Rockbund Art Museum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지만 바티 커는 인도를 대표하는 여성 작가로 인정 받는다. 부모님이 인도계 이민자라 인도인 피가 흐르기 때문이기도 하고, 인도 특유의 종교적, 문화적 특징을 드라마틱하게 녹여내는 덕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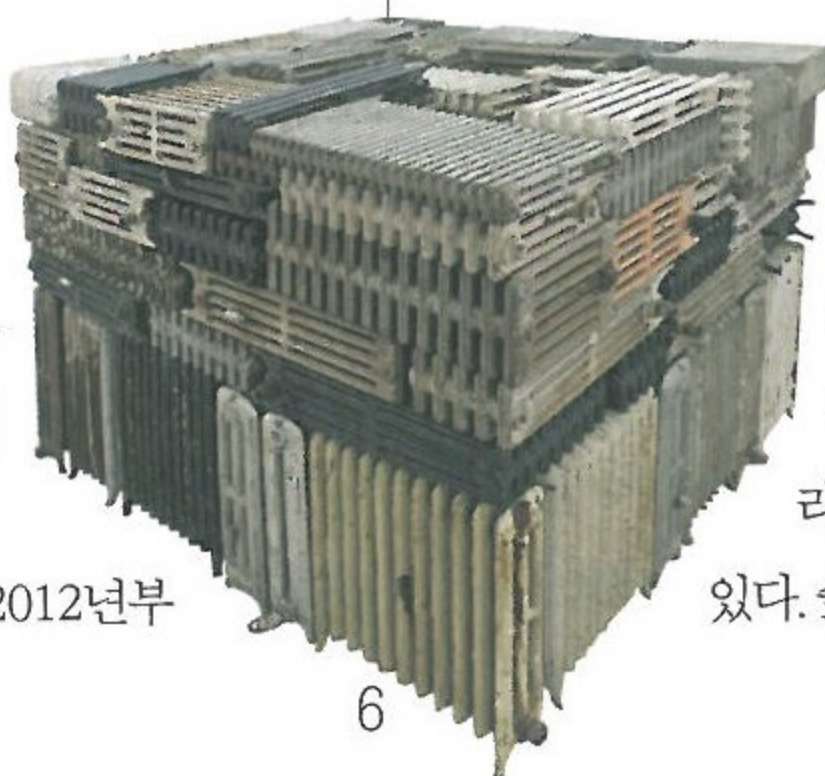
그녀가 가장 애용하는 소재 중 하나가 '빈디(인도 여성들이 미간에 붙이는 장식용 점)'다. 버스 가득 빈디를 붙이거나 형형색색의 수많은 빈디를 원형으로 이어 붙여 하나의 거대한 '빈디 우주'를 창조한다. 인간과 동물의 혼성체, 인도 전통 의상인 사리를 들고 춤을 추는 여신 등의 작품도 흠 잡을 데 없이 아름답다. 인도 특유의 신비롭고 영적인 이미지까지 더해져 더 강렬한 느낌을 준다.

바티 커는 미술 시장에서도 점점 그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2010년 소더비 경매에 출품한 동물 조각 작품이 약 150만 달러에 거래됐으며, 미국 미술 잡지 <아트+옥션>이 선정한 '2013년 세계 컬렉터와 딜러가 꼽은 미래 스타 50'에도 이름을 올렸다.

2010년 개관한 중국 상하이의 록밴드 아트 뮤지엄은 2012년부

1 'Misdemeanours'(2006). 2 'Self Portrait'(2007). 3 'And all the while the benevolent slept'(2008). 4 'Warrior with cloak and shield'(2008). 5 'The skin speaks a language not its own'(2006). 6 'The hot winds that blow from the West'(2011).

터 매년 해외 유명 여성 작가 한 명을 초청해 기획전을 여는데 바티 커가 그 두 번째 주인공으로 아시아에서 열린 그녀 개인전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3월 30일까지 열리는 전시에서 소개하는 작품은 총 20점. 신화적이고, 여성적이며, 종교적인 바티 커의 작품 세계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인도'로 세계적 아티스트가 된 바티 커를 상하이에서 만났다.



신화와 종교적 키워드가 암호처럼 얽힌 듯한 당진 작품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모호한 작품 제목도 혼란을 가중시킨다. 이번 전시 타이틀 <바티 커: 경범죄 Misdemeanours>는 어떤 의미인가? 미술관 입구에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작품 제목이기도 하다. 유리섬유로 만든 하이에나가 바퀴 달린 나무 위에 놓여 있다. 숲에 있어야 할 하이에나를 미술관에서 만나는 '모순'

과 '잡종성' 같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다. 내 다른 작품에서도 종종 이런 느낌을 받을 것이다. 반은 원숭이고 반은 사람인 사진 연작 '하이브리드 시리즈'가 대표적이다. 인간의 기원이 원숭이기 때문에 인간의 반은 원숭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처럼 두 가지 '사이between'에 놓인 것들이 좋다. 나 자신이 영국에서 태어난 인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이번 전시를 위해 몇몇 작품을 새롭게 작업했다고 들었다. 약 1년 전부터 이 전시를 기획한 덕분에 차분히 준비할 수 있었다. 약 30%의 작품을 새로 제작했다. 미술관 외벽에 설치한 'Target Queen'(2014), 노란 빈디를 V자 형태로 붙인 'Virus V'(2014) 등이 대표적 신작이다. 상하이에서 열리는 전시답게 영국의 식민지이던 도시의 역사성, 미술관의 수직적이고 기하학적인 구조도 염두에 두고 작품을 만들었다.

영국에서 살다가 20대 중반에 처음 인도에 갔다고 들었다. 인도의 첫인상은 어땠는가? 인도에 가기 전부터 인도 사람과 문화, 종교에 익숙한 환경에서 자랐다. 그 덕에 큰 이질감을 느끼지는 않았다. 하지만 빈디나 사리 같은 전형적 '인도 언어'를 사용하기까지는 약 3년이 걸렸다.

인도의 대표적 상징물을 사용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는가? 영국에서 태어났지만, 내 안에는 동양적 아이덴티티가 존재한다. 나 자신을 인도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빈디나 사리를 작품에 사용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게 느껴진다. 한 아티스트가 전 세계를 모두 아우르거나 대표하는 건 불

가능하다. 재스퍼 존스가 성조기를 사용하고 중국인 예술가가 도자기를 굽는 것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여성, 인간과 자연, 삶과 죽음, 역사 등 작품의 주제가 매우 다양하다. 당신의 관심사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대여섯 가지의 관심사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 한 가지 테마에 국한되는 작업을 좋아하지 않는다. 5년 전 이슈를 다시 꺼내거나, 10년 전 했던 작업을 다시 들춰 새롭게 변신시키기도 한다. 스튜디오에서 한꺼번에 굉장히 많은 작업을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한다.

라디에이터, 쌀, 지구본 등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한다. 양이 상당한데... 여기저기, 장소 불문

하고 물건을 그러모으는 '수집가'다. 이번 전시 큐레이터인 산디니 포다르 Sandhini Poddar는 나를 보고 '정키junky'하다고 놀린다(웃음). 스튜디오에 아직 사용하지 않은 재료가 산처럼 쌓여 있다. 그 많은 것들을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는 나도 모른다. 이번 전시 작품 중 'The hot winds that blow from the West'(2011)는 미국에서 가져온 라디에이터로 만든 작품이다. 무작정 구입한지 5년 만에 용도를 결정한 셈이다.

주제와 재료에 관한 영감은 주로 어디에서 얻는가? 뭐라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내가 속한 사회와 역사에서 아이디어를 얻는다. ❶

글 김민정 <행복이가득한집> 기자 | 취재 협조 갤러리 페로탕 | 담당 정성삼 기자



바티커 영국 넥시켓 대학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인도를 여행하다 아예 정착하기로 결심했고 지금껏 뉴델리에 거주하며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신화, 여성, 가정, 자아 등이 그녀 작품의 주요 키워드다.

1 'The butcher, the baker, the candlestick maker'(2008). 2 'Lady with an ermine'(2012). 3 'Small world, big book'(2010). 4 'Not all who wander are lost'(2009-2010). 5 'What can I tell you that you don't know already?'(2013).



©the artist and the Rockbund Art Museum